

“전역 후 칩거생활...지인들 덕분에 용기 얻었다”

여친 폭행·유산 혐의 1심 무죄
“실패한 삶 아닐까 끝 없이 고민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연기자 김현중이 KBS W '시간이 멈추는 그때'를 통해 4년 만에 연예활동을 재개한다. 각종 사건사고로 인하여 활동을 중단한 뒤 24일 첫 방송하는 KBS W '시간이 멈추는 그때'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심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연기자 김현중이 4년 만에 연예계에 복귀하며 내놓은 한 마디다.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뒤 24일 첫 방송하는 KBS W '시간이 멈추는 그때'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심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현중은 23일 서울 영등포동 한 쇼 핑몰에서 복귀작인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지난 일에 대해 사과했다. 그가 공식석상에 선 것은 무려 4년 만이다. 드라마 출연도 KBS 2TV '감격시대: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이다.
그는 “어떤 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려

야할지 모르겠다. 연기와 음악으로 보답 하겠다는 말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김현중은 애써 덤덤하게 행동하려 했으나, 자신의 과오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2014년 시작된 전 여자친구와의 민·형사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당시 여자친구를 폭행해 아이를 유산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김현중은 “군 복무 2년간은 전역 후 어떻게 지내야할 지에 가장 많이 고민했다. 제대 후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실패한 삶이 아닐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왔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 귀를 열다 보니 주변의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조금씩 힘을 얻어 드라마 출연에 대한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하지만 대중의 반응이 걱정스러운 것은 인지상정.

김현중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촬영에 나섰다. 잘 해낼 수 있을지라는 고민은 한도 끝도 없더라. 저를 보고 방송사가 편성 내준 것도 감사하다. 연기력 평가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없다”고 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먼 미래가 없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중은 아빠로서 솔직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그의 아들은 친모인 전 여자친구가 양육하고 있다. 김현중은 “아직은 아빠로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더 많은 말은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말을 아끼고 싶다”고 했다.

‘시간이 멈추는 그때’는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가진 준우(김현중)가 무늬만 같은 건물주 선아(안지현)를 만나 점차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김현중, 안지현과 함께 인교진, 임하룡 등도 출연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해시태그 컷



기안84-박나래 “진짜 커플인줄”

개그우먼 박나래(오른쪽)와 웹툰 작가 기안84가 합동 생일파티를 벌였다. 박나래는 10월25일, 기안84는 10월22일이 생일. 두 사람은 함께 출연 중인 MBC '나 혼자 산다' 회식에서 케이크를 선물 받았다. 프로 그램에서 '짬'을 탔던 사이여서일까. 나란히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꽤 잘 어울린다. 팬들은 “커플인줄”, “진짜 잘 어울림” 등의 반응을 보낸다.

#스포츠포스트 #박나래 #기안84 #잘어울러

이 드라마

'가을동화(2000)



송승헌·송혜교에 원빈까지 막강 비주얼 방송내내 화제

가을에 떠오르는 드라마로 '가을동화'를 꼽곤 하지만, 드라마는 가을 이야기가 아니다. '가을동화'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남녀의 슬픔과 애절한 이야기를 그렸다.

2000년 KBS 2TV를 통해 방영된 '가을동화'는 남매 준서(송승헌)와 은서(송혜교)가 사실은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인 것이 밝혀지고 각자의 삶을 살다 성인이 된 후 다시 만나는 이야기다. 두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은서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새드엔딩으로 결말을 맺었다. 첫사랑의 아련한 감정이 많은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드라마는 방영 당시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송승헌과 송혜교는 가을에 펼쳐진 동화 속 주인공처럼 각자의 캐릭터를 잘 소화해 드라마 인기를 이끌었다. 두 사람의 빈틈없는 '비주얼'은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었다.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의 원빈과 한채영, 한나나도 주인공 못지않은 활약을 벌였다. 극중 원빈이 송혜교를 벽에 밀치는 장면에서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라는 대사는 각종 드라마와 코미디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형태로 패러디되기도 했다.

드라마 인기는 주인공으로도 이어졌고, 현재 이들은 한류스타로 활약하고 있다. 당시 송승헌과 송혜교는 각각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순풍산부인과'로 얼굴을 알려 코믹한 이미지가 남아있었지만 '가을동화'를 통해 연기자로 눈도장을 받았다. 특히 송혜교는 19살의 나이에도 성숙한 분위기와 잘 어울려졌다는 평을 얻었다.

연출자 윤석호 PD는 '가을동화'의 성공에 힘입어 2002년 '겨울연가', 2003년 '여름향기', 2006년 '봄의 왈츠' 등을 선보이며 계절 드라마 시리즈를 완성했다.

백슬미 기자

편집 | 김형주·김대건 기자



‘완벽한 타인’? 완벽한 망신!

김지수 만취 추태로 영화 외면
최근 SNS 활동...비난 더 커져

아마추어보다 못한 26년 경력의 배우가 별인 추태로 인해 당장 며칠 뒤 개봉하는 영화는 고민에 빠졌다. 공들여 완성한 영화를 제대로 알릴 기회를 놓친 대신 작품을 향한 부정적인 반응이 퍼진 탓이다. ‘완벽한 타인’을 향해 주연배우 김지수가 ‘재’를 뿌린 꼴이다.

김지수의 만취 인터뷰 사태 여파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과 소속사가 각각 사과를 더한 입장을 내놨지만 반향은 크지 않다. 이미 ‘완벽한 타인’은 작품 자체보다 김지수의 만취 사태 이슈로 더 부각되는 분위기다. 개봉을 앞둔 영화들이 크고 작은 잡음이나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히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이번처럼 ‘망신스러운’ 경우는 그 선례를 찾기 어렵다.

‘완벽한 타인’을 향한 대중의 적나라한 반응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서 잘 드러난다. 개봉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23일에도 포털사이트 등에 영화 제목을 검색하면, 작품을 향한 궁극적이나 평가보다 김지수의 만취 논란에 관한 언급이 대다수다. 제작진은 이슈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지만, 돌아선 ‘빛심’은 시큰둥하다.

‘완벽한 타인’은 완성도가 탄탄한 작품이란 사실에서 김지수의 미숙한 행동과 대처는 더 큰 아쉬움을 남긴다. 심지어 그는 논란을 일으키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3일,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아이들과 함께 그린 그림을 SNS에 올리고 ‘온라인 소통’을 재개해 반쪽을 사고 있다.

김지수가 뿌린 ‘완벽한 재’를 수습하는 일은 온전히 제작진과 또 다른 주연배우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서진은 오랜만에 출연한 영화를 알리는 인터뷰 자리에서 줄곧 김지수와 관련한 질문을 받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앞으로 인터뷰 등 홍보에 나서야 하는 또 다른 주연배우들의 어깨도 가볍지 않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현장.jpg 조용필 데뷔 50주년 기념 메달 공개 “가장 큰 영광”

가수 조용필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메달이 나왔다. 한국조폐공사는 한류라는 국가 브랜드 확산에 기여하고자 국내 대중음악에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 조용필의 메달을 제작했다.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메달 공개행사에서 조용필은 “제게 행운이고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메달은 ‘무대 위의 가수 조용필’을 담고 있으며, 5050개 한정 제작된다. 고급형(금·275만원), 고급형2(금·143만원), 컬렉션형(은·16만5000원) 등 3종으로, 11월4일까지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과 풍산화동양행,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전국 지점, 골든듀 롯데백화점 전국 매장에서 예약 접수가 진행된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톱스타 없는 남녀주연상...이젠 ‘연기력의 시대’

‘공작’의 이성민과 주지훈, ‘미쓰백’ 한지민과 권소현, ‘허스토리’ 김희애, ‘독전’ 진서연...

올해 영화상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수상 트로피를 거머쥔 이들이다. 10월 부일영화상을 시작으로 22일 대중상, 11월13일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 등 시상식에서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수상 명단을 썼다.

이성민은 ‘공작’으로 위에 거론한 세 영화상의 남우주연상을 독차지했다. 그와 함께 연기한 주지훈도 부일영화상과 영평상 조연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지민과 권소현은 나란히 영평상 주연상과 조연상을 나눠가졌다. 김희애는 부일영화상 여우주연상, 진서연은 대중상 여우조연상으로 스크린 속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수상 명단은 지금까지 스크린 관객에게 낯익은 톱스타급 배우들의 면면을 제친 성과로 기록된다. 그만큼 이들이 올해 한국영화의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각기 평가 기



이성민(대중상 남우주연상), 한지민(영평상 주연상)

준이 달랐을 영화상 심사위원단의 선택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지만, 이들의 면면은 한국영화 속 배우 지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이끌어내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각 영화상 수상자 명단을 통해 배우의 활동폭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흥행 파워를 지녔다고 인정받는 일부 톱스타급 배우들에게 집중됐던 연기의 기회가 이제 실

‘공작’ 이성민, 3개 영화상 독차지 ‘미쓰백’ 한지민은 영평상 주연상

력으로 관객의 인정을 받은 또 다른 이들 에게도 분배되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톱스타급 배우나 감독을 캐스팅하지 않으면 제작비를 투자 받는 게 그리 녹록하지 않다. 시상식 수상자들이 거둔 성과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우의 층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의 성과가 더 폭넓은 캐스팅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22일 열린 제55회 대중상 시상식은 음악상과 조명상을 수상한 ‘남한산성’의 스태프 대신 낯선 사람이 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리수상을 전제로 주최 측이 사전 섭외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상은 다시 한 번 체면을 구겼다. 또 적지 않은 부문상의 대리수상 등 미숙한 진행도 관객의 실망감을 자아내며 영화상으로서 권위를 되찾겠다는 주최 측의 다짐을 무색케 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